

백세시대, 안티에이징 배경 속 1:1 피부전문의 시대 도래할 것

건대입구차안박피부과 김세연 대표원장(피부과전문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피부 치료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데 작은 관심만 가져도 해결될 일인데 무관심이 가져오는 재앙치고는 내 피부의 해악이 큰 것. 바로 여드름 자국 치료에 대한 이야기다.

붉은 색 혹은 갈색으로 자리 잡은 자국은 조기에 치료만 잘하면 재발이 거의 없는 스마트한 치료인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하고 방심하게 된다. 그렇게 방치된 여드름 자국은 색소침착처럼 지저분하게 보여 무결점 피부를 선호하는 피부미인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한다. 건대입구점 김세연 피부과전문의는 2012년 개원 당시에도 여드름 질환 외에 가장 중점을 두는 치료가 여드름 자국이었다.



전후무후 완벽한 피부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내 피부에 관심 갖기'입니다.

여드름 자국 치료 명성, 치료 결과로 유지되다

"개원 이후 7년이 지났어요. 참 빠르네요.(웃음) 그동안 건대입구 점을 찾아준 고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번 인연이든 계속 오시던 남 같지가 않아요.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며 성심을 다하게 됩니다. 여드름 자국은 제일 안타까운 병변이예요. 치료가 까다롭지 않고, 시기에 맞게 치료 한다면 그 자체로도 무결점 피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요. 더 장점이라면 흉터로 가는 상태를 중간 점검해 주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계속 살피줘야 하거든요. 전후무후 완벽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내 피부에 관심' 갖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드름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살피야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여드름 자국까지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전문의의 소신으로 자국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드름 치료는 역시 건대입구 차앤박피부과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백세 시대, 삶의 질을 꽉 채워주는 피부 자존감

최근 몇년 사이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노화는 겹잡을 수 없고, 결국은 안티에이징을 위한 싸움이 사는 내내 지난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피부에 문제 있는 특정 사람들만 찾는 곳이 피부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연령대가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찾는 곳이 된 것이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졌죠. 최근에도 20대 고객님들이 탄력이나 잔주름때문에 안티에이징

시술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세시대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그만큼의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피부건강도 그에 속할 것입니다. 말그대로 1:1 피부주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유행이나 트렌드를 떠나 백세시대에 가치 있는 삶을 규정하는 다양한 변곡점이 있겠지만 그 삶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영위하는데 '피부'도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심 유지, 직원간 화합을 위한 모두의 도전

"개원시 '초심을 지키는' 지역 주치의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과의 호흡도 그러하고, 개원 멤버들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부와 관리부의 상호 소통을 위해 업무를 공유하고, 각 부의 업무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멀티시스템으로 직원과 의료진, 그리고 고객님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티시스템 도입은 자신의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직원들에게는 큰 변화였고, 한동안 과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직원들 간의 화합은 물론 서로의 분야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었다. 모두가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다.

한번 갔는데도 여러번 간듯한 익숙함, 여러번 갔는데도 매번 한결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 지역의 피부주치의로서 오늘도 정진하고 있는 건대입구 차앤박피부과는 변함없이 스킨 힐링존 공간으로 고객들을 초대한다.

